

문화재청 공고 제2019-33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12. 31.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현재 지정번호	현재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錦營 測雨器)	1점	국 유 (기상청)
2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大邱 宣化堂 測雨臺)	1점	국 유 (기상청)
3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昌德宮 測雨臺)	1점	국 유 (국립고궁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명칭 변경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현재 지정번호	문화재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1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錦營 測雨器)	공주감영 측우기 (公州監營 測雨器)	해당 문화재 소재지의 올바른 표기로 명확한 지정정보 제공 및 원활한 관리에 필요
2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大邱 宣化堂 測雨臺)	대구감영 측우대 (大邱監營 測雨臺)	
3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昌德宮 測雨臺)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昌德宮 摛文院 測雨臺)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현재 지정번호	현재 문화재명	수량	해제사유
1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錦營 測雨器)	1점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2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大邱 宣化堂 測雨臺)	1점	
3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昌德宮 測雨臺)	1점	

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	1건 2점	국 유 (국립김해박물관)
2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像 一括)	4구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불교중앙박물관)
3	관북여지도 (關北輿地圖)	1첩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마. 지정 예고 사유 : 불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

- 현재 지정현황 : 보물 제561호(1971.12.21. 지정)
- 현재 지정명칭 :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
- 변경 지정명칭 : 공주감영 측우기(公州監營 測雨器)
- 소유자(관리자) : 국유(기상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기상청
- 수량 : 1점
- 규격 : 높이 32.1cm, 지름 14.9cm, 무게 6.2kg
- 재질 : 청동
- 형식 :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된 원통형 측우기
- 조성연대 : 1837년(헌종 3)
- 사유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는 1837년(헌종 3)에 제작된 것으로, 측우대는 없고 측우기만 전해오고 있다. 조선시대 충남지역 감독관청이었던 공주감영[錦營]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1915년 경 일본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가 국외로 반출한 뒤 1971년 일본에서 환수되어 기상청이 보관해 오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측우기를 제작해 전국의 감영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 점이 만들어졌으리라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금영 측우기’만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1442년(세종 24)에 발명된 측우기는 서양보다 약 200년 앞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降雨) 측정기이다. 조선의 측우기는 땅에 스며든 물의 깊이를 측정하던 이전의 비합리적인 강우 측정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강수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케 한 발명품이라는 점에서 세계과학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조선시대 측우제도를 유일하게 증명하고 있는 ‘금영 측우기’의 제작시기와 크기 등에 대해서는 중단의 바깥 면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통해 확인된다. 명문에 의하면 이 측우기는 1837년(헌종 3)에 만들었으며 높이는 평균 1자[尺] 5치[寸], 직경 7치, 무게 11근으로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 높이 31.9cm,

지름 14.9cm, 무게는 6.2kg에 해당하며, 이는 세종 대에 처음 만들어진 측우기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바닥면의 명문을 통해 통인(通引), 급창(及唱), 사령(使令)의 직책을 가진 관리들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에 새겨진 이러한 규격 사항은 바로 이 측우기가 조선시대 측우기 제작 지침에 맞게 만들어졌음을 실질적으로 의미한다고 하겠다.

* 측우기 중단의 명문 : 금영 측우기는 높이가 1자 5치, 지름은 7치, 도광 정유년(1837)에 만들었고 무게는 11근이다.(錦營/測雨器/高一尺五寸/徑七寸/道光丁酉製/重十一斤)

* 측우기 바닥면의 명문 : 입번은 통인, 급창, 사령이 담당함(入番通引/及唱/使令/次知)

구성을 보면, 원형의 청동 주물로 제작되어 있으며 하단과 중단 3단의 세 단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단의 아래쪽은 바닥이 막혀 있어 물을 담아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중단과 상단은 서로 접합시키는 구조이다. 사용 시에는 접합부에 납땀을 해 고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학적 조사를 통해 중단과 하단의 접합부에 납땀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접합부는 미세하게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아 서로 끼워 맞추도록 하였고 구연부는 대나무 마디처럼 만들어 기형(器形)의 변형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아 정확한 강수량 측정을 위해 고도의 정밀한 형태로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영 측우기의 평균 치수인 높이 32.1cm, 지름 14.9cm를 주척(周尺, 1자 206~207mm)으로 환산했을 때 명문에 표기된 ‘높이 1자 5치[高 1尺 5寸]와 직경 7치[經 7寸]와 근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측우기는 주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측우기 각 동체(胴體)가 약 5치의 크기로 만들어져 굳이 자를 대지 않아도 몸체가 대력적인 강수량을 알 수 있는 척도로서 기능을 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는 비록 19세기에 만들어졌으나, 세종시대 이후 비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증빙해준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로서만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측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측에 이어 이를 농사에 활용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도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므로, 인류과학사적·문화사적 의미가 지대해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大邱 宣化堂 測雨臺)

- 현재 지정현황 : 보물 제842호(1985.8.9. 지정)
- 현재 지정명칭 : 대구 선화당 측우대(大邱 宣化堂 測雨臺)

- 변경 지정명칭 : 대구감영 측우대(大邱監營 測雨臺)
- 소유자(관리자) : 국유(기상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기상청
- 수량 : 1점
- 규격 : 길이 38.7cm, 폭 37.0, 높이 46.0cm, 홈지름 15.5cm, 홈깊이 4.2cm
- 재질 : 화강암
- 형식 : 화강암 석재로 만들어진 방형 측우대
- 조성연대 : 1770년(영조 46)
- 사유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大邱 宣化堂 測雨臺)’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46cm의 장방형 석재로, 원래 대구감영(大邱監營)에 설치되어 있었다. 전면에 ‘측우기(測雨器)’, 후면에 ‘측우대, 건륭 경인년 5월에 만듦(測雨臺, 乾隆庚寅五月造)’이라고 새겨진 명문을 통해 1770년(영조 4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기상학자였던 와다 유지[和田雄治]의 기록을 따르면, 이 측우대는 경상감영 선화당(宣化堂)의 뜰에 있다가 총독부 관측소로 옮겨졌다고 하며, 지금은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15세기 측우기와 측우대 제도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770년 영조의 명으로 다시 실행되었으며,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이 때 다시 시작된 측우제도를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의의가 있다.

당시 영조는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고 전국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해,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보고하게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때 측우대의 규격을 공식화했다는 점으로,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자, 너비는 8치, 석대(石臺) 위 둥그런 구멍의 깊이는 1치로 규정하였다. 포백척의 1자가 약 46cm임을 감안하면, 높이 46cm인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영조 대 측우대 제도가 반영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조선 후기 15세기의 옛 제도를 따라 측우기와 측우대 제도를 마련하였고, 기존의 전례가 지속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비록 측우기는 사라졌지만, 제작시기가 명확하고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강수량 측정 역사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금영 측우기’와 함께 국보로 지정해 역사적·과학적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昌德宮 摛文院 測雨臺)

- 현재 지정현황 : 보물 제844호(1985.8.9. 지정)
- 현재 지정명칭 : 창덕궁 측우대(昌德宮 測雨臺)
- 변경 지정명칭 :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昌德宮 摛文院 測雨臺)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량 : 1점
- 규격 : 길이 45.3cm, 폭 45.5, 높이 30.3cm, 홈지름 16.2cm, 홈깊이 4.3cm
- 재질 : 대리석
- 형식 :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장방형 측우대
- 조성연대 : 1782년(정조 6)
- 사유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昌德宮 測雨臺)’는 1782년(정조 6) 정조의 명에 의해 창덕궁 규장각의 부속 건물인 이문원(摛文院) 앞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이는 측우대 좌우 네 면에 새겨진 ‘측우기명(測雨器銘)’과 19세기 궁궐그림인 <동궐도(東闕圖)>를 통해 확인된다. <동궐도>에는 이문원 앞뜰에 받침돌 없이 놓인 것으로 그려진 측우대 한 기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창덕궁 측우대’이다.

석재는 조선시대 왕실유물에 많이 쓰인 대리석(당시는 대리암으로 불림)으로, 잘 다듬어 유려하게 새긴 글씨 또한 중앙의 장인이 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문원 측우대는 1910년경까지 원래 자리에 있다가 이후 경성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창경궁 명정전,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을 거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측우대의 겉면에 새겨진 ‘측우기명’은 『내각일력(內閣日曆)』 1782년 9월 14일 기사와 『한경지략(漢京識略)』에도 수록되어 있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은 창덕궁 이문원에 측우기를 세우게 된 연원과 그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의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측우기는 세종 24년에 구리로 주조하였으며 높이 1자 5치(1척 5촌), 직경 7치라는 사실, 둘째, 1770년(영조 46)에 세종 대의 제도를 따라 측우기를 만들고, 창덕궁, 경희궁, 팔도(八道), 강화부, 개성부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셋째, 1782년(정조 6) 여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후 비가 내렸고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 이문원 뜰에 측우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문을 통해 ‘창덕궁 측우대’는 기우제를 통한 특별한 소망의 대상으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세종 조에 시작한 조선 측우기 제도가 영조 대에 이

르기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증(實證)해주는 유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는 1442년(세종 24) 조선에서 농업에 활용하고자 세계 최초로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한 이후 조선 후기에도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왔음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금영 측우기’,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함께 국보로 지정해 우리나라 전통과학의 우수성과 그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지정 예고】

□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 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건 2점(기대 1점, 단경호 1점)
- 규 격
 - ① 원통형 기대 : 높이 48.7cm. 입지름 24.5cm. 기벽 두께 0.8~1.0cm.
 - ② 단경호 : 높이 30.4cm. 입지름 18.0×18.6cm. 복경 최대 지름 28.5cm.
- 재 질 : 토도(土陶)
- 형 식 : 의례용 도기
- 조성연대 : 가야(5세기)
- 사 유

부산 북천동 11호분은 1980~1981년까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수혈식 석실분으로서, 5세기 경 부산에 있었던 가야 세력의 수장급 인물의 무덤이다. 인근의 북천동 10호분과 함께 주곽(主槨)과 부곽(副槨)을 이루는 대형 고분임이 밝혀졌으며, 그 중 11호분은 가야 고분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다.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는 가야시대 고분 중에서 도굴당하지 않은 북천동 11호분의 석실 서남쪽에서 출토되어 출토지가 명확하고

5세기 가야시대 무덤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가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들 중에서 깨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어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기대 중앙 부분에는 거북이 토우 한 마리를 부착되어 있는데 삼국시대 토우 중 거북이 토우가 붙어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고배(高杯)·항아리·바리모양 항아리받침대 등의 토·도기류는 크고 작은 개별 무덤에서 수점에서 수 십 점 이상 출토되지만, 원통모양 항아리 받침대는 가장 큰 무덤들에서 대부분 1점이 출토되어 당시 가장 중요한 의례용품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이 유물은 통형 그릇받침 위에 목이 낮은 도기(陶器) 항아리가 올려 있던 상태 그대로 출토된 드문 희귀한 사례이다. 기대와 항아리는 규모가 크고 형태가 조화롭고 안정적인 점, 기대 표면이 자연스럽게 시유(施釉)된 점, 11단을 나누어 단계별로 다양한 종류의 투창(透窓)을 뚫고 지그재그로 문양을 새겨 넣은 점 등 여러 면에서 가야 토기 제작의 기술적 성취를 엿볼 수 있다.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와 거북이의 조형성, 안정된 조형 감각과 세련된 문양 표현 등으로 볼 때,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도기로 꼽을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할 충분한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像 一括)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0호(1983.9.29. 지정)
- 명 칭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불교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4구
- 규 격
 - ① 보살좌상 : 높이 35cm, 무릎 폭 19.35cm, 무릎 높이 5.44cm, 측면 폭 15.2cm
 - ② 아미타상 : 높이 33.6cm, 무릎 폭 22.5cm, 무릎 높이 7.17cm, 측면 폭 22.5cm
 - ③ 관음보살 : 높이 25.9cm, 무릎 폭 25.9cm, 무릎 높이 7.6cm, 측면 폭 16.4cm
 - ④ 지장보살 : 높이 25.1cm, 무릎 폭 18.3cm, 무릎 높이 5.5cm, 측면 폭 16.3cm
- 재 질 : 금동
- 형 식 : 보살좌상, 아미타여래삼존
- 조성연대 : 고려시대(보살좌상), 조선 초기(아미타여래삼존)
- 사 유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像 一括)’은 무량사 오층석탑에 봉안됐던 금동보살좌상(1구)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로서, 1971년 8월 오층석탑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1구는 고려시대의 금동보살좌상이며, 3구는 조선 초기의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좌협시(左脇侍) 관음보살상과 우협시(右脇侍) 지장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량사 오층석탑은 중량감 넘치는 형태미를 자랑하는 고려 전기에 제작된 석탑이다. 석탑의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고려 전기와 조선 초기에 제작된 상들로, 탑의 초창 및 중수 연대를 추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다.

2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한 고려 전·중기 불교조각사 규명에 크게 기여할 작품이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아미타여래삼존상은 고려 말 조선 초 유행한 관음(觀音)과 지장(地藏)으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 도상을 형성한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이 삼존(三尊)은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 탑내 불상 봉안 신앙 및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탑 봉안 아미타여래삼존상 중 구성이 가장 완전하고, 규모도 크며 상태도 양호하다.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조성 배경을 알려 줄만한 기록과 명문이 없으나 발견지가 분명한 불상들이라는 점,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으로도 조각기법이 우수하다는 점,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밝혀준 준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의미가 크므로 보물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수 량 : 1첩(13면)
- 규 격 : 표지 31.0×20.0cm *상세규격 아래 참조
- ① 제1면 길주목: 45.2×57.8cm ② 제2면 명천부: 57.9×44.5cm ③ 제3면 경성부: 47.7×57.6cm
- ④ 제4면 부령부: 45.5×38.8cm ⑤ 제5면 무산부: 44.4×87.3cm ⑥ 제6면 화령부: 49.3×43.7cm

- ⑦ 제7면 중성부: 63.0×48.5cm ⑧ 제8면 온성부: 56.0×39.4cm ⑨ 제9면 경원부: 55.2×44.9cm
- ⑩ 제10면 경흥부: 54.4×50.2cm ⑪ 제11면 함관량: 57.5×47.5cm ⑫ 제12면 마운량: 57.3×48.5cm
- ⑬ 제13면 마천령: 53.0×56.0cm

- 재 질 : 종이에 채색
- 형 식 : 절첩(折帖)
- 조성연대 : 1738년(영조 14)~1753년(영조 31) 사이
- 사 유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는 표기된 지리와 표현방식 등으로 보아 1738년(영조 14)~1753년(영조 31)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첩의 지도집으로, 조선시대 관북(關北) 지방인 함경도 마을과 군사적 요충지를 그린 것이다.

‘관북여지도’는 1719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 이삼(李森, 1677~1735)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작품으로, 조선과 청나라 정계(定界)를 전후로 함경도 지방 방어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 면마다 회화식으로 자세하게 표현되었고, 여백에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호구수(戶口數), 군사수(軍士數), 역원(驛院) 등 지리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1678년(숙종 4)의 무오식년(戊午式年)의 호구가 등재된 점, 숙종 1684년(숙종 10)에 도호부로 승격된 병마첨사의 무산진(茂山鎭)이 그려진 점, 숙종 38년(1712) 세워진 정계비(定界碑)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곳곳에 그려져 있다.

‘관북여지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봉수(烽燧) 사이의 연락 관계를 실선으로 직접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함경도 지도 뿐 아니라 기타 지방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이다. 아울러 봉수 간의 거리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화사한 채색의 사용, 산세에 드러나는 준법(皴法), 강에 표현된 물결 등은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회화적 수준 또한 높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관북여지도’는 현존하는 북방의 관방 군현지도 중 완성도가 가장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매우 좋다. 또한 함경도와 야인(野人) 지역을 구분하거나, 봉화망과 봉화봉 간의 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점, 봉화(烽火)의 신호법 등을 자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지도발달사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현존하는 ‘관북여지도’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이므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인정된다.

[첨부]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좌: 앞면/ 우: 뒷면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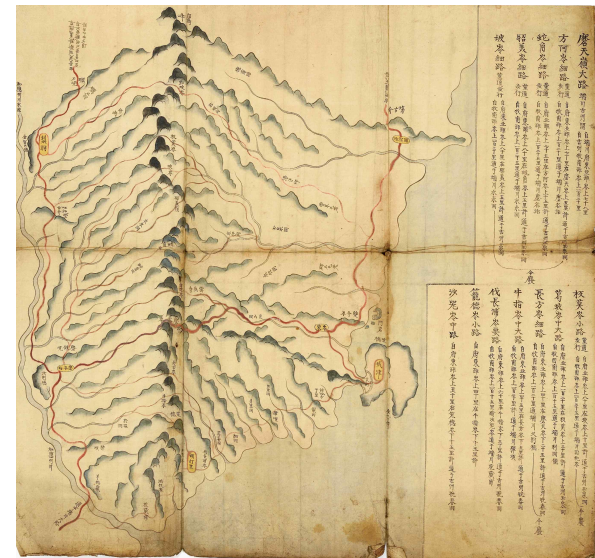
□ 보물 지정 예고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관북여지도>